윤성원 광주지법 부장판사 금호타이어 노사에 일침

"문구 하나 두고 서로 못믿어서야… 대동정신으로 어려움 극복하길"

"노사 상생에 의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모두 서로를 조금씩 더 믿으세요."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7일 열린 가운데 재판장이 노사 양측에 신뢰 회복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법 민사10부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인 심문을 통해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날 "지난해 노사 단체협약에 2년간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명문화 돼 있고,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서는 노조가 지난달 17일 파업을 의결한 행위까지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서 문구인 '파업을 확정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에 대해 "이번 파업에 한정된 것이다"라는 입장과 "17일 파업 의결까지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노사의 분위기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재판이 논쟁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난달 31일 노사 양측이 작성한 합의 정신이 뭔지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부장판사는 심문에서 "문구 하나를 두고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노사간 신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31일 작성한 합의 정신이 만약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동정신이었다면 사측이 노조에 뭔가를 배려하고, 노조도 사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부장판사는 합의서 내용의 해석을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조 측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단일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명령했다. 또 오는 28일께 사측의 입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측은 이날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5일 노조가 단체협약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를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다가 광주시의 중재로 직장 폐쇄 8일 만에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제유아교육전 인파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 많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3곳중 2곳 "경기둔화 우려"

유가·원자재가 상승 물가불안 지속 정책 대응 필요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국내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마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최근 경제 현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0.5%, '매우 둔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5.7%나 돼 기업 3곳 중 2곳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반면 '호전' 또는 '매우 호전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3%와 0.5%에 그쳤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2.6%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상반기'(25.9%)나 '올해 하반기'(19.2%)는 돼야 하락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기업 규모, 수출 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이었다"며 "유가와 원자재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매출 부진과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영 애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유가·원자재가 상승'(52.0%)을 꼽았으며 이어 '경제 불확실성 증가'(12.0%), '금리 상승, 이자 부담'(8.5%), '임금 상승, 노사관계'(6.4%), '기상 이변, 자연재해, 질병'(5.8%), '환율 하락'(4.1%), '기타'(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판매 부진'(44.9%)과 '채산성 악화'(35.4%), '원료 확보 차질'(32.1%) 등의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도 다수였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채산성 악화'를 응답한 비율이 무려 48.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허위계약서 '세금폭탄'

7월부터 적발땐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 취소

오는 7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취소된다.

7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감면 혜택자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비과세·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또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여기에 더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자 1만4113명에게서 177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혜택자가 작성 후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122.14 (-4.57)
▲ 코스닥지수	534.97 (+0.99)
▼ 금리 (국고채 3년)	3.68% (-0.02)
▲ 원·달러 환율	1,088.50원 (+1.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형 샐러드 만들기

7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식산업식자재 박람회에서 신선편이농산물협회, 농촌진흥청, 음식문화원 등 관계자들이 대형 샐러드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값 179일만에 내렸다

전국 ℓ당 1970.92원 … 전일 대비 0.45원 하락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79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70.92원으로 전일 대비 0.45원 내렸다.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지난 5일(ℓ당 1971.37원)까지 사상 최장 기간인 178일 연속 올랐다.

지난달 17일 역대 최고가(1950.02원, 2008년 7월16일)를 경신한 뒤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주간 기준으로도 3월 다섯째주까지 사상 최장 기간인 25주 연속 상승, 역대 최고치(1948.7원, 2008년 7월 셋째 주)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이 7일부터 3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함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은 주춤해질 전망이다. 7일 오전 8시 현재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일 대비 ℓ당 0.53원 하락한 1970.39원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건설업계 '봄은 언제'

봄철 불구 체감지수 부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2월에 비해 0.9포인트 오른 69.0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달 CBSI가 2월보다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보통 3월에는 혹한기에 중단됐던 공사 물량이 늘어나고 주택 분양이 본격 시작되는 등 계절적 호재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합세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연합뉴스

화 / 제 / 집 / 중 / 한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2009 DAENEUNG's Best Seller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포켓 사이즈 MP3 무료다운 효율적 학습

" 알짜배기 여행회화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 주제별 단어장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 한자능력검정 "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알짜배기 영어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내신·일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표시
알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daeneungeducation www.daeneungedu.com